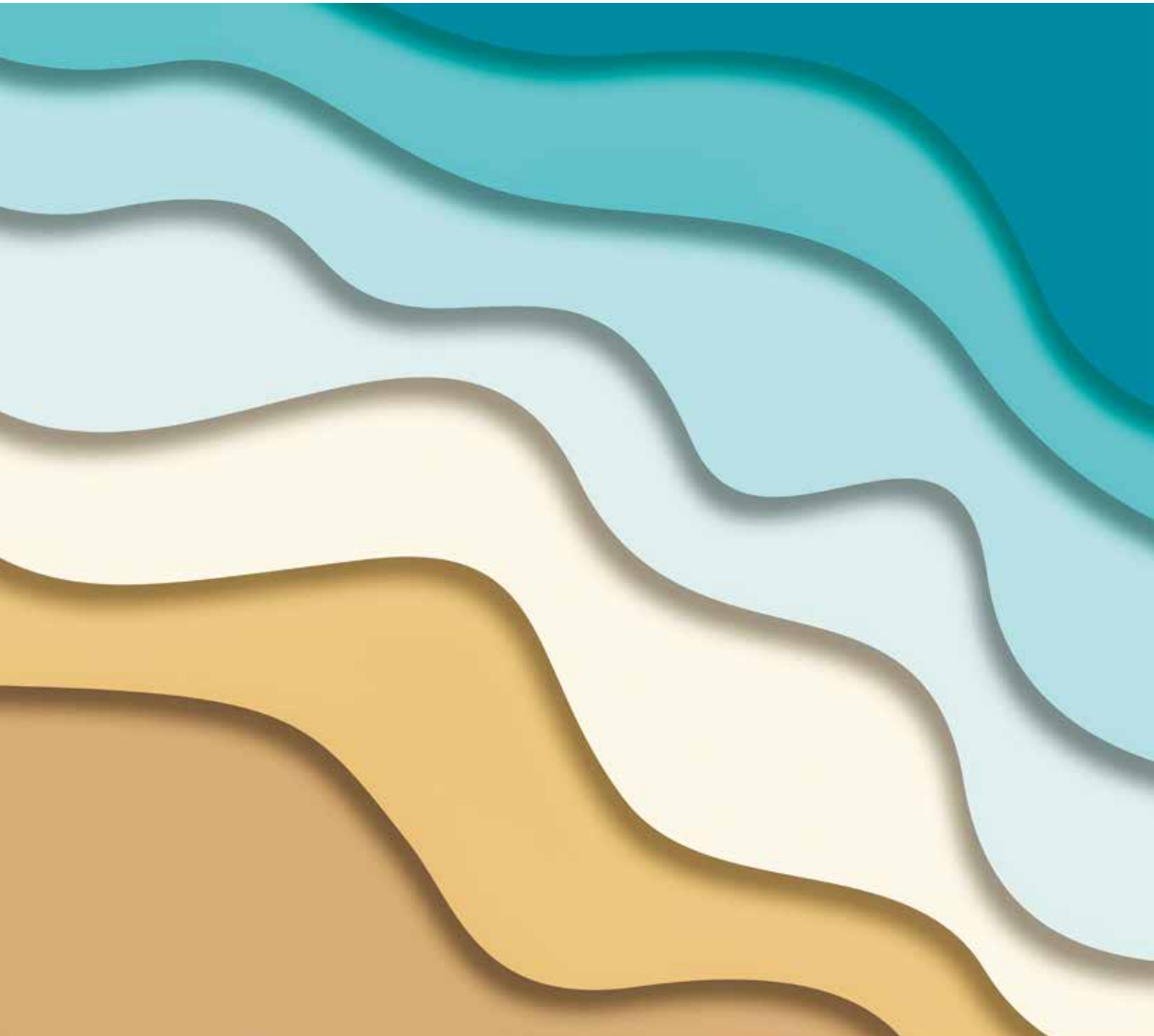


08 2019
VOL.230

언론 사람



04 인터뷰 人+人
이준식 독립기념관 관장

06 손거울
양치기 소년의 진화

08 세상사는 法
소녀상 모욕 사건

10 트렌드, 트렌드, 트렌드!
밀레니얼 & Z세대의
합리적인 콘텐츠 소비생활

평온한 스웨덴 시골마을

북유럽 스웨덴의 고즈넉한 시골 마을,
밀밭 사이로 발트해의 바람이 머뭇거린다.

노벨상을 만든 나라, 일찍이 복지 개념이 정착된 무척 안정된 나라.
하지만 이곳 역시 사람 사는 곳이다.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인구, 밀려오는 난민들, 이웃 강대국의 안보위협 등 난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소중한 여름 햇살 속에
햇볕 고스란히 담은 밀도 평온하게 익어간다.

글·사진 이훈구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ufo@donga.com

CONTENTS

08 2019
VOL.230

- 02 CLOSE UP
평온한 스웨덴 시골마을
- 04 인터뷰 人+人
이준식 독립기념관 관장
- 06 손거울
양치기 소년의 진화
- 08 세상사는 法
소녀상 모욕 사건
- 10 트렌드, 트렌드, 트렌드!
밀레니얼 & Z세대의
합리적인 콘텐츠 소비생활
- 12 이달의 시
엄마의 품
- 온전한 믿음과 안심의 소유주
- 14 아침을 여는 사람
나혜석, 조선을 사랑하다
-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더 셔클
- 18 NEWS
위원회 뉴스
위원 동정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19년 8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Glitterstudio <Blue Sea And Beach Summer>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평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희생, 그 고귀함에 대한 기억

이준식 독립기념관 관장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언론사람은 광복절을 앞두고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준식 관장을 만나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다.

진행 남승균(홍보팀 팀장) 사진 및 정리 윤은자(홍보팀 에디터)



Q 올해는 3·1 혁명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독립군 총사령관인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이자 여성 광복군인 지복영 여사를 어머니로 두신 관장님께는 더욱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A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독립운동사 연구자로서 독립 정신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수유리 애국지사 묘역에 잠들어 계시는 외할아버지께 자주 데려가셨는데, 그럴 때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이런 예우를 받고 계시지만, 이름 석 자도 남기지 못하고 후손도 없이 돌아가신 수많은 독립군 전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 때문이었을까요? 독립운동가로서 이름을 남기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3·1 혁명과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이 출범하여 올해는 대한민국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나라,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민주공화국을 완성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Q 3·1 혁명 당시 평양에 배포된 독립선언서 원본이 100년 만에 독립기념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A 당시 평양은 서울과 더불어 독립선언의 양대 발원지였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서울에 있던 보성사라는 인쇄소에서 처음 찍어내 전국으

로 보내졌는데, 이 초판본의 특징은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라고 시작되는 부분에서 조판 과정의 실수로 ‘조선’이 ‘선조’로 찍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인쇄한 독립선언서에는 ‘조선’으로 수정되었죠. 현재 독립선언서 원본은 모두 8매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독립선언서는 ‘선조’로 찍혀 있는 초판본으로, 평양에서 뿌려진 독립선언서로는 처음 원본이 확인된 것인 만큼 의미가 큼니다.



독립선언서 (출처: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이 독립선언서의 기증자는 일본인 사토 씨입니다. 평양에서 가게를 하던 사토 씨의 할아버지가 1919년 3월 1일 평양에서 직접 습득해 지금까지 보관했다고 합니다. 100년 만에 돌아온 이 독립선언서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는 한 일

본 시민이 100년 동안 보물처럼 지켜온 독립선언서를 기증한 것은 민간 차원에서라도 한국과 일본의 연대를 이루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해외 독립운동가의 아내도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만주의 호랑이'라고 불리던 김동삼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만주에서 무장투쟁 지도자로 활동하시다 일제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셨죠. 그런데 김동삼 선생의 며느리가 회고록에서 '우리 시아버지는 혁명가셨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혁명가라면 우리 시어머니도 혁명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김동삼 선생의 독립운동도 부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죠. 특히 해외 망명 독립운동가의 독립운동은 아내와 가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독립군을 결성하는 것만이 독립운동은 아닙니다. 독립운동의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독립운동의 공적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정부도 기준을 바꾸어 일부 독립운동가의 아내를 서훈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대상이 더 확대될 거라 기대합니다.

Q 도산 안창호 선생의 주도로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이 1919년 8월 21일에 창간되어 올해로 100년을 맞이했습니다. 독립을 위해 언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A 19세기 말부터 언론 활동을 구국을 위한 길이라고 여긴 분들이 많았습니다. 언론의 힘을 알고 있었던 일제는 당연히 항일 언론을 용납하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항일 언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항일투쟁을 고취하는 지하 유인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3·1 혁명 당시 나온 『조선독립신문』 등의 지하신문이 그 대표적인 예죠.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았지만, 수많은 비밀결사가 신문과 잡지를 비밀리에 발행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 신문과 잡지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보기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간한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입니다.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국내보다는 나았지만, 남의 나라에서 한글로 신문과 잡지를 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나라

안팎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언론 활동을 벌인 것은 그만큼 언론이 항일투쟁에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거겠죠.

Q 74회를 맞는 광복절을 맞아 언론사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설움 중에 가장 큰 설움이 집 없는 설움이라고 합니다. 민족으로 치면 나라 없는 설움이 가장 큰 설움이겠죠. 1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떨어져 일어났습니다. 민초들은 의병이라는 이름 아래 일제와 맞서 싸웠습니다. 1910년 강제병합으로 나라를 일제에 빼앗겼지만, 우리 민족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힘들더라도 자유민으로 살기 위해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3·1 혁명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연인원 백만 단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화제가 된 뮤지컬 '신흥무관학교'의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노랫말처럼, 독립운동가들은 기록도 이름도 남기지 않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의 해방은 남이 준 선물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벌인 독립운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2005년 헌법재판소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존재한다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독립운동의 계승자입니다. 독립운동가들 가운데는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의 영달을 버리고 독립과 해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것이 독립운동의 역사입니다.

독립기념관도 3·1 혁명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을 기억하기 위해 <독립운동가 인명사전 특별판>을 출간하고 독립운동가 1000명의 웹 전시관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해 역사 연구·학술 분야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람 독자들께서도 3·1 혁명 10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을 많이 찾아주시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보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FACTS



양치기 소년의 진화

글 안형준(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뿌~~~’ “늑대가 나타났다!”

뿔피리를 불던 양치기 소년이 다급히 외칩니다. 밭에 나갔던 마을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언덕을 바삐 올라오지만,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번째도 속았지만, 세 번째 외침에는 아무도 언덕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진짜였고, 양떼는 모두 늑대들에 물려 숨졌습니다. 기원전에 쓰여진 이솝우화 속 양치기 소년은 진화를 계속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아기를 못 낳는대요!”

2016년 5월, 케냐와 카메룬, 세네갈의 페이스북에 백신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졌습니다. 파상풍 백신에 불임성분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의학논문이 잘못 해석된 허위정보였습니다. 가톨릭선교병원과 의학학회에서 허위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됐다고 팩트체크 전문매체인 ‘아프리카체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전에도 소아마비 백신이 위험하다는 가짜뉴스로 엄청난 수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엄청난 비극은 허위정보와 맞서 싸우는 팩트체크(fact check) 저널리스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6월 말 55개국 250여 명의 저널리스트들이 머나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모인 까닭입니다. 필자를 포함한 한국의 저널리스트 11명은 서울대 SNU 팩트체크센터와 한국언론학회의 지원으로 ‘글로벌 팩트 6’에 참가했습니다.

미국 포인터재단과 IFCN(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후원으로 마련한 컨퍼런스입니다. 기초연설에 나선 아프리카체크의 피터 존스는 ‘가짜뉴스가 바이러스라면, 팩트체크는 백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팩트체크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라마다 정보통신기업과 팩트체크 전문매체 그리고 기존의 언론사들이 힘을 합쳐 허위정보와 맞서는 ‘팩트체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흐름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왓츠앱과 유튜브 등 IT기업들이 금전적 지원은 물론 허위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총선을 치른 스페인이 정부측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채, 4당 대표의 TV토론 생방송을 라이브로 팩트체크한 사례를 소개해 눈길

을 끌었습니다. IT기업의 지원 속에 정치토론에 자주 등장하는 통계와 수치를 미리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팩트체크 전문매체 말디타(Maldita) 주도로 진행된 라이브 팩트체크는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끌어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팩트체크에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것입니다. 특히 영어와 스페인어, 리투아니아어 기반으로는 자동화 팩트체크(Automated FactCheck:AFC)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이미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AFC는 엄청난 양의 동영상 콘텐츠를 활자화하고, 페이스북 등 SNS의 콘텐츠를 살핍니다. 그리고 팩트체크가 필요한 대상을 골라내 인간 팩트체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AFC 연구개발비는 수천만 원에서 시작해 많게는 20억 원까지 정보통신기업들이 대부분 지원했습니다. 한국어 기반의 AFC 개발도 서둘러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눈길을 끈 것은 구글이 도입한 클레임리뷰(Claim Review) 시스템이었습니다. 검색창에 단어를 치면 블로그가 먼저 뜨는 한국의 포털과는 달리, 팩트체크가 진행됐던 기사가 가장 상단에 뜨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된 신뢰도가 높은 기사를 이용자들이 먼저 만날 수 있게, 기술적인 약속을 표준화한 시스템입니다. 클레임리뷰 시스템을 주도한 빌 아데어(Bill Adair) 듀크대 교수는 '한국의 네이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컨퍼런스가 열리기 직전, 싱가포르의 가짜뉴스 처벌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허위정보를 퍼 나르기만 해도 최고 3천2백만 원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도록 했습니다. 허위정보를 알고도 삭제하지 않은 SNS기업은 6억 4천만 원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싱가포르의 언론자유가 낙제점인 상태여서, 해외 저널리스트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하지만 허위정보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실효성이 낙제점인 대한민국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SNS 허위정보를 다루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져, 21세기 디지털 현실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석대 김은규 교수팀의 허위조작정보 실태보고서(2017년 9~11월)를 보면, 우리나라 허위정보는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먼저, 팩트에 대한 단정적 표현은 줄어든 반면, 편향적 정보인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둘째, 사회 관련 뉴스보다 정치 관련 허위정보의 비중이 압

도적으로 높습니다. 셋째는 허위정보의 유통경로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업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허위정보를 추적할 기술적 지원(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대신 네이버와 다음카카오톡이 포털과 SNS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특수상황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뉴스와 시사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양쪽의 의견이 맞서는 경우, 한쪽의 의견만 취해서는 균형감을 잃게 됩니다. 통계나 수치를 인용한 기사는 원자료를 살펴봐야 하고, 기사에 등장하는 단위와 평균값은 적절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시작하는 Y축의 숫자가 0인지 아닌지 여부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또 특별한 케이스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기사 제목이 너무 내 마음에 꼭 든다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기사의 최고 송고시기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기사는 송고 직후에 많이 유통되고 클릭수가 증가했다가 줄어들지만, 가짜는 오래전에 송고된 기사가 시간이 흐른 뒤에 간헐적으로 유통량이 급증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21세기 양치기 소년에 속지 않고, 정보 편식 없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교양인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소녀상 모욕 사건

글 김주연(김주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얼마 전 청년 4명이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조롱하듯이 엉덩이를 흔들었던 일이 있었다. 이를 본 시민이 항의하자, 청년 중 한 명이 일본 말로 “천황폐하 만세”라고 말했다. 처음 상황을 전달한 기사를 봤을 때만 해도 일본인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야 한국인 청년들이 벌인 일이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헛헛하고 슬픈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어쨌든 이 사건은 큰 이슈가 되었다.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 재산죄인 재물손괴죄와 명예에 관한 죄인 모욕죄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 모양새다.

먼저 재산죄인 손괴죄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쪽에서는,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하는 죄인데, 동상은 ‘재물’이므로 재물인 동상에 대한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맥아더 장군 동상을 방화

한 행위를 특수재물손괴로 인정했던 법원 판례를 들면서, 동상을 모욕한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 동상 방화 사건은 애초에 모욕죄를 적용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 모욕죄는 사자(死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이 행위가 고인이 된 맥아더 장군에게 모욕이더라도 모욕죄로 다룰 수가 없었다. 또한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재물 등의 이용 가치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들었다고 해서 소녀상의 재산 가치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맥아더 장군 동상 방화의 경우도 그을음 정도만 남기고 진화가 되었던 모양이다. 이에 변호인은 그을음 정도로 재산 가치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을음 청소로 구 예산 292만 5,000원이 투입된 사실을 근거로 재산 가치에 해를 끼쳤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번 소녀상 사건의 경우는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없을 것이며, 특별히 재산 가치 효용에 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모욕죄 적용은 가능할까? 침을 뱉는다는 것은 명실공히 가장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삼국 시대 한성 백제를 공격한 고구려 장수가 백제의 개로왕을 사로잡아 처형하기 전에 얼굴에 침을 세 번 뱉어 패주의 비참함을 더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모욕죄란 ‘모욕 행위’를 벌하는 죄이므로, 그런 점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엉덩이를 흔든 행위도 두말할 나위 없이 모욕적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모욕죄 성립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걸까.

첫 번째는 ‘동상’에 대한 모욕을 ‘사람’에 대한 모욕으로 치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동상’에 대한 모욕 행위라고 해서 ‘사람’에 대한 모욕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정인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동상을 예로 들어보자. 내 얼굴을 형상화한 동상이 있는데 누가 거기에 침을 뱉었다면, 나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과 같은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인터넷에서 ID만을 표시하여 욕을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들이 ID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ID만을 지칭해서 욕을 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한다. ID나 동상은 실존 인물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그것이 놓인 세계가 가상 세계인지, 실제 세계인지가 다를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당 동상이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명확하다면 이것이 범죄 성립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누구’에 대한 모욕인지 특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두루뭉술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은 모욕의 대상이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향한 것인지 돌아가신 분들까지 모두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소녀상 제작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시민들인지, 아니면 소녀상을 관리하는 지자체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 특정’이란 범인이 모욕하려는 대상자가 그 피해자임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그 청년들을 포함해서- 소녀상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고 있다. 소녀상 작가인 김서경, 김운성 부부는 지금은 할머니이지만 끌려가던 그때에는 소녀였던 점에 착안하여 소녀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년들은 일본말을 쓴 이유가 ‘위안부 할머니를 조롱하려는 의도’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이 모욕행위는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이 아닐까? 지금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는 스무 분 정도로, 집단표시 명예훼손의 관점에서 피해자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처벌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던 이 사건은 다행스럽게도 ‘공소권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혹은 취소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은 “청년들의 잘못도 크지만 이들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도록 놔둔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 청년들이 사과한다면 받아들이고 몸소 겪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려주고 싶다. 개개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후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청년들의 사과를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한없이 죄송스런 마음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청년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 고소가 취해질 것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청년들의 사과가 단지 처벌을 면파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길, 그리하여 위안부 할머니 분들이 느끼셨을 모욕이 깨끗하게 씻기었길 바란다. 또 청년들에게는 할머니의 깊고 너그러운 마음이 전달되어, 이 일이 그들에게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게 한 계기가 되고 바른 삶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유료 온라인 콘텐츠 이용실태조사로 본 밀레니얼 & Z세대의 합리적인 콘텐츠 소비생활



글 남민희(대학내일20대연구소 책임에디터)

‘4플릭스’라는 신조어를 아시나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Netflix)’의 ‘넷’을 ‘4’로 표기한 단어로, 한 번에 최대 4명이 동시 접속 가능한 넷플릭스 요금제를 4명이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과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도 생겼습니다. 온라인 콘텐츠에 익숙한 요즘 세대가 합리적으로 유료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인 셈이지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어둠의 경로를 이용해 음악과 영화 등을 불법 다운로드받는 것이 당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공짜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더 어색한 일이 되었습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전국의 밀레니얼(만19~34세)과 Z세대(만15~18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10명 중 9명 가까이(88.8%)가 최근 6개월 내 유료 콘텐츠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 Z세대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유료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음원(64.6%)’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귀에 이어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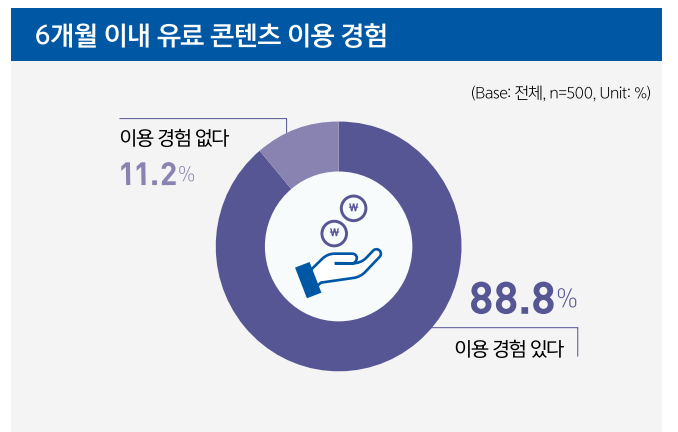
없는 젊은 세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음원 콘텐츠 이용을 위해 월평균 7,483원을 쓴다고 답했습니다. 연령이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그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점에서 요즘 세대 사이에서 음원 콘텐츠를 유료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원 콘텐츠를 결제할 때는 월정액 방식을 선호(66.0%)하며, 주로 이동을 하거나 대중교통에서 이용(59.8%)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레니얼 & Z세대가 두 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유료 콘텐츠인 ‘동영상(37.6%)’의 경우는 어떨까요? 동영상을 보는 데에는 월평균 9,276원을 쓴다고 답했습니다. 20대 후반 응답자는 조금 더 많은 10,009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 이용하는 음원 콘텐츠와는 달리 동영상 콘텐츠는 집에서 이용한다는 비율(80.8%)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콘텐츠별 선택 결제 형태를 선호(40.0%)한다는 점에서 월정액 결제를 선호하는 음원 콘텐츠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밖에 ‘메신저 이모티콘(35.1%)’, ‘게임 아이템(30.2%)’, ‘애플리케이션(27.9%)’ 등 다양한 콘텐츠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3명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 '4FLIX'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유료 온라인 콘텐츠 이용실태조사>, 2019

유료 콘텐츠 관련 이용 경험 및 인식(온라인 유료 콘텐츠 관련 구매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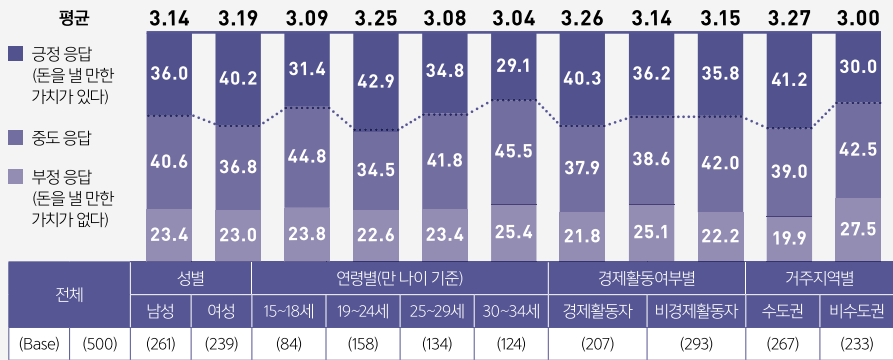
온라인 유료 콘텐츠를 가치 있게 여기는 밀레니얼 & Z세대

- 유료 콘텐츠와 관련한 인식을 물었을 때 3명 중 1명(36.0%)은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긍정 응답함.
- 특히 19세~24세의 긍정 응답 비율이 42.9%로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유료 온라인 콘텐츠 이용실태조사>, 2019

온라인 유료 콘텐츠 관련 구매 인식

(Base: 전체, n=500, 단위: %)



중 1명(36.0%)은 온라인 유료 콘텐츠를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19세~24세의 긍정 응답 비율이 42.9%로 다른 세대보다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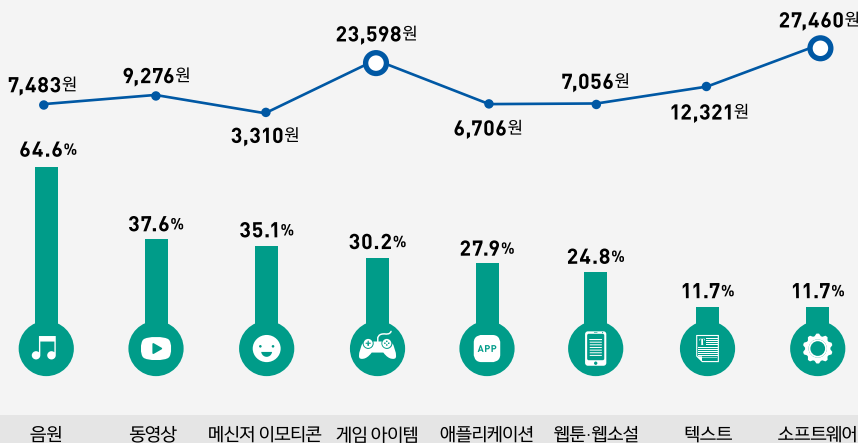
그러나 아무리 마음으로는 가치를 인정한다 해도 현실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57.0%)이 무료 체험 이벤트 서비스만 갈아타며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며, 이벤트·제휴할인·사은품 때문에 이용 중인 서비스를 변경(51.6%)해봤다고 답했습니다.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과 공유해본 경험도 45.4%로 나타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4플릭스'가 이에 해당하겠지요. 밀레니얼 & Z세대가 콘텐츠를

유료로 소비해야 하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금전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합리적인 면모를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대가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하고,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은 무척 긍정적인 일입니다. 밀레니얼 & Z세대에게 향후 온라인 유료 콘텐츠 이용 의향을 물었는데, 71.8%의 응답자가 지금보다 이용량을 늘리거나(5.8%) 지금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것(66.0%)이라고 합니다. 이미 밀레니얼 & Z세대 대부분이 유료 콘텐츠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들이 어떤 유료 콘텐츠에 반응할지, 또 얼마나 똑똑하게 이용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용한 유료 콘텐츠 유형 및 평균 결제액

(Base: 최근 6개월 이내 유료 콘텐츠 이용자, n=444, Unit: 복수%)



유료 콘텐츠 관련 경험

(Base: 전체, n=500, 단위: %)

무료 체험 이벤트 서비스만 갈아타며 사용한 적 있다

57.0%

이벤트/제휴할인/사은품 때문에 이용 중인 서비스를 변경해 본 적 있다

51.6%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유료 온라인 콘텐츠 이용실태조사>, 2019

‘엄마의 품’ - 온전한 믿음과 안심의 소우주

글 정호구(충북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아, 둥글구나

- 알 34

정진규

우리는 똑같이 두 팔 벌려 그 애를 불렀다 걸음마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 애가 풀밭을 뒹뒹 달려왔다 한 번쯤 넘어졌다 혼자서도 잘 일어섰다 그 애 할아버지가 된 나는 그 애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들고 있었고 그 애 할머니가 된 나의 마누라는 그 애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애 엄마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빈 손이었다 빈 가슴이었다 사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달려온 그 애는 우리들 앞에서 조금 머뭇거리다가 초콜릿 앞에서 바나나 앞에서 조금 머뭇거리다가 제 엄마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본시 그곳이 제자리였다 알집이었다 튼튼하게 비어 있는, 아, 둥글구나!

- <알시(詩)>(세계사, 1997)에서



정진규(1939-2017) 시인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시인의 집을 구축하게 한 정점에 그의 시집 <몸시>(1994)와 <알시>(1997)가 있습니다. 어느 일이든 다 그러하지만, 시인의 길도 이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정점에서 가장 아름답고 탄력 있는 생명의 숨결을 느끼게 합니다.

‘몸시’ 연작으로 구성된 시집 <몸시>, 그리고 ‘알시’ 연작으로 구성된 시집 <알시>에서 정진규 시인은 ‘몸’과 ‘알’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몸’과 ‘알’을 천착하면서 그는 잉여와 기교를 벗어나 오직 본질과 본체만으로 이루어진 참된 삶과 그 세계를 사랑하며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잉여와 기교가 없는 본질과 본체만의 삶! 그것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진실한가요? 이 세계 앞에서 사람들은 틈 없는 믿음이 무엇이며 심층에서 번지는 감동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과 감동! 그것은 불신의 혼탁한 세계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희망의 빛이자 샘물입니다.

이 시의 장면은 눈에 잡힐 듯 선명합니다. 풀밭이 있고, 걸음마를 배울 나이의 어린 아기가 있고, 그의 엄마가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습니다. 걸음마란 한 생명이 직립에 성공하는 대사건이지요. 인류사가 직립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을 필요하였듯이 한 인간이 직립하여 두 발을 마음대로 떼어놓고 길을 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놀라운 진화의 표상입니다.

이렇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풀밭에서 할아버지인 시인은 인간사와 세상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어린 손자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바나나를 들고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부름 앞에서 손자는 그만 조금 머뭇거리다가 돌아가 버리고, 실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엄마의 빈 몸으로 뛰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초콜릿과 바나나의 위력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물질이라도 인위이고 기

교입니다. 그에 반해 엄마의 품은 무위의 본질이고 본체이며 본체입니다. 서로는 대체할 수 없는 양면입니다. 물론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요.

정진규 시인은 이런 엄마의 품을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멋지게 의미화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품은 어린 손자가 있었던 생명의 제자리였고 온전한 알집과 같은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리는 본래의 자리로서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안심되는 곳입니다. 알집은 잉여가 없는 참다운 생명의 소유주로 절대적 보호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정진규 시인은 이런 엄마의 품에 대하여 좀 더 철학적이며 정신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연이라기보다 본체와 같습니다. 아, 엄마의 품은 튼튼하게 비어 있는 세계이고 둥근 세계라는 것입니다. ‘비어 있음’은 정진규 시인이 이전의 여러 작품에서 자신도 감격하며 사용했던 ‘비어 있음의 충만’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비어 있음’은 이와는 조금 달리 무장이 해제된 포용의 빈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둥글다는 것’은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이 시의 제목이면서 시의 맺음말인 ‘둥글다는 것’ 앞에서 시인은 감탄사를 진하게 발합니다. ‘둥글다는 것’은 온전한 것, 달리 장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 인간의 사심이 깃들지 않은 진심의 세계, 어떤 도구로도 틈을 낼 수 없는 ‘무봉(無縫)’의 소유주, 이런 세계를 가리킨다고 읽어보면 될까요?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품은 힘이 셉니다. 무위의 자리, 포용의 자리, 믿음의 자리, 안심의 자리가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가 있음으로써 어린 생명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어른 또한 옛일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위키백과)

나혜석, 조선을 사랑하다

글 장영은(성균관대 한국학연계전공 초빙교수)

나혜석은 1896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학식과 인품이 훌륭하기로 정평이 난 개명관료였다. '수원 나 부잣집'으로 통하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나혜석은 어린 시절부터 명민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부잣집이라고 해도 여성이 서울로 유학 가는 일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나혜석은 진명여자보통고등학교에 진학해 1913년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학교를 졸업하자 나혜석의 아버지는 이제 딸이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나혜석은 도쿄에 가서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다. 오빠 나경석의 도움으로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에 진학한 나혜석은 미술과 문학에 흠뻑 빠져들었다.

일본 지식인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경험이였다. 그러나 일본 유학을 통해 나혜석은 자신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자각한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집안이 좋고, 일본 지식인들과 가깝게 지내도 자신은 조선인이며 조선은 식민지라는 사실을 느낀 것이다. 나혜석의 현실 인식은 날카로웠다. 결국 나혜석은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한다.

1919년 나혜석은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의 여교사들을 만나러 다닌다. 도쿄 유학 시절, 집에서 결혼을 강요하자 나혜석은 거절 의사를 강하게 밝혔고, 아버지는 일체의 학비 지원을 중단했다. 나혜석은 어쩔 수 없이 휴학하고 조선으로 돌아와 미술 교사로 일하며 학비를 모은 후에야 다시 복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나혜석은 다른 교사들과 폭넓게 교류했고, 이를 통해 형성된 인맥과 조직은 전국적이었다.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나혜석은 독립선언서를 여러 학교에 전달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결국 체포되어 5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출옥 후, 김우영을 만난 나혜석은 이듬해 결혼을 한다. 남편 김우영은 변호사이자 외교관이였다. 사람들은 나혜석이 결혼 후 안전한 삶을 즐기며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나혜석은 달랐다.

1922년 김우영이 현재 중국 단둥 지역인 안동현 부영사로 부임하자, 나혜석은 그곳에서 부영사의 아내로만 지내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나혜석의 삶은 변함없었지만, 나혜석은 야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1922년 3월 22일 자 《동아일보》 4면에

“아직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이
조선 여자로 하여금 그림에 대한 흥미를 줄 만한
기회와 편의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하지,
만일 이 앞으로라도 일반 여자계에 그림에 대한 취미를
고취할 만한 운동이 일어나기만 하면 반드시
여류 화가가 배출할 줄로 믿습니다”



나혜석의 자화상 (출처: 위키백과)

는 「안동현 여자야학」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조선 여자를 위하여 일심전략이라는 나혜석
여사는 금번 당지 팔번통 태성의원 내에 야학을
설립하고 매주 3일간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열성으로
지도하여 입학 지원자가 날로 많다더라.”

조선 여성의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문맹 타파가 급선무라고 생각했
던 나혜석은 자신의 신념을 야학을 통해 실천했다.

나혜석은 1923년 ‘황옥 경부폭탄 사건’에 개입하고 의열단 단원들의
무기를 보관하는 등 김우영과 함께 의열단 단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
했다. 이는 유자명 등 독립운동가들이 회고록에서 직접 밝힌 내용들이
다. 한때 김우영이 일본 외무성 소속의 관료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나혜
석을 친일파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나혜석은 조선
의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성찰했고, 조선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이라고 판단되면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실천했다. 그

와 동시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조선의 미래를 바라보았다. 나혜석
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 미래는 반드시 달라지리라 생각했
다. “아직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이 조선 여자로 하여금 그림에 대한 흥
미를 줄 만한 기회와 편의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하지, 만일 이 앞으
로라도 일반 여자계에 그림에 대한 취미를 고취할 만한 운동이 일어나
기만 하면 반드시 여류 화가가 배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선 여
자는 결코 그림을 배우지 않으려 하니까 그렇지, 만일 배우고자 할진대
반드시 외국 여자의 능히 따르지 못할 특징이 있는 실례를 나는 어느
고등정도여학교에서 도화를 교수하는 동안에 발견하였습니다”라며
조선 여성들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나혜석은 조선에 태어나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여성으로서 자
신의 사회적 책임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했
던 지식인이었다. 조선을 사랑했다는 그의 말은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편견과 시대의 한계 속에서 나혜석은 1948년 불운과
외로움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시대를 앞서 자기다움을 추구했
던 그의 삶은 여성인권의 선각자로 오늘날 새롭게 재조명받고 있다.



투명성 vs 사생활,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서클

글 윤성은(영화평론가)

24시간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본다

“혼자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카메라와 소셜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반드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비와 조치를
동반해야 할 것이다.”

지금 공공장소에 있다면, 잠깐 주위를 둘러보자. 당신을 향하고 있는 CCTV는 몇 개인가?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카메라가 전부인 것은 확실한가?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딘가에서 당신을 관찰하고 있는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끔찍하다고? 아무도 없는 골목 길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을 때, 그 은밀한 눈이 구급차를 불러준다면 아마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또한, 그것이 크고 작은 범죄들까지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

‘더 서클’(감독 제임스 폰솔트)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서클’에 입사한 ‘메이’(엠마 왓슨)가 바로 이러한 질문 앞에 고민하는 이야기다. CEO, ‘에이몬’(톰 행크스)은 서클의 직원들이 모두 모이는 ‘드림 프라이데이’에서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무선카메라 ‘씨체인지’를 선보인다. 어디든 쉽게 장착할 수 있고, 실시간 영상 분석 기술까지 갖춘 이 카메라는 모든 정보를 위성으로 전송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낱알이 공개하면서 독재자와 테러범들이 숨지 못하게 만든다는 에이몬의 명분이다. 그의 명쾌하고 세련된 프레젠테이션에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한다. 그러나 에이몬의 주장에는 이미 모순이 있다. 그의 방식대로 범법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씨체인지를 온 천지에 숨겨 놓는 불법을 감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카메라들을 합법화시켜 소셜미디어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이 에이몬의 목표지만, 메이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의 실시간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는 서클의 의료 서비스에 감동하는 한편, 한밤중 카약을 타다가 죽을 뻔한 자신을 발견해준 씨체인지에 무한한 신뢰를 갖게 된다. 에이몬과의 유대가 강화되면서 메이는 ‘비밀은 거짓’이고, ‘경험의 공유는 기본 인권’이라는 전제하에 자신의 일상을 100% SNS에 공유하기로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가슴에 씨체인지를 달고 서클 유저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살게 된 메이는 몇 주 만에 세계적인 SNS 스타가 된다. 그렇게 수많은 타인의 눈이 있기에 그녀에게는 작은 위선이나 거짓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메이에게 사생활이란 없으며, 그것은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녀와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은 3분간 카메라를 꺼도 되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문제는 오히려 씨체인지가 가진 장점들에 있다. 이 작은 카메라를

통해 정치인들의 삶이 24시간 공개된다면 그들은 철저히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는 투명해지고, 위정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메이는 드림 프라이데이에서 씨체인지와 서클 시스템을 통해 단 10분 동안 숨어 있던 지명 수배자를 찾아낸다. 다큐멘터리처럼 현장감 넘치게 연출된 이 장면은 소셜 미디어와 개인 정보 공유의 장점을 긍정하게 만든다. 시민들의 힘으로 범죄자를, 그것도 손쉽게 잡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씨체인지의 정당성은 확보되는 셈이다.

메이 또한 처음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생활 없는 삶을 자처한다. 스스로 현대판 ‘트루먼 쇼’(1998, 감독 피터 웨어)의 주인공이 되기로 한 것이다. 일거수일투족에 달리는 각양각색의 댓글들과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부럽기보다 불편하고 거북해 보인다. 영락없이 사람의 눈처럼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 씨체인지는 메이가 보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의 삶을 ‘감시’한다. 그러나 메이와 반대로 철저히 프라이버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미 부지불식간에 삶의 많은 부분을 사회의 시스템과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공공에 노출될 수 있는 상태로 저장된다. 가령, 전화나 문자, 카드 사용 내역, 의료 관련 기록으로 나의 소비 형태와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음은 물론이고 수많은 CCTV와 블랙박스, GPS 검색 기록 등으로 나의 동선과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는 그것이 없던 시절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된다. 프라이버시를 기준으로 할 때, 디스토피아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 서클’은 소셜미디어 기술의 장점도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그 어두운 면도 신랄하게 고발한다. 메이의 동네 친구가 자신을 쫓는 카메라를 피하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장면은 충격적이다. 세상은 투명성을 빌미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많이 공유하기를,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를 요구하지 모른다. 혼자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카메라와 소셜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반드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비와 조치를 동반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 뉴스

대전지역 언론사 대표 간담회 개최



이석형 위원장은 7월 11일 대전 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전지역 언론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피해구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대전중재부 염원섭 중재부장, 송종문 부위원장, 이승선 위원, 이노신 위원과 강영욱 대전일보 대표이사, 최정규 중도일보 대표이사, 김도훈 충청투데이 대표이사, 이완희 KBS대전방송 총국장, 신원식 대전문화방송 대표이사, 김상기 TJB대전방송 기획미디어사업국장이 참석했다.

<언론중재위원회 동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언론중재위원회 공모전에서 5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독창성이 뛰어나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2차 심사에는 2,600여 명의 네티즌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상의 영광은 ‘추억의 놀이로 알아보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출품한 김윤지 씨에게 돌아갔다.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contest.pac.or.kr/main/index.asp>) 및 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 동정

국제 컨퍼런스 참석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7월 10일부터 나흘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의 가짜뉴스와 선거(Fake News and Elections in Asia)”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아시아센터(Asia Centre)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가짜뉴스의 역사, 아시아 지역의 가짜뉴스 규제 법안 등 가짜뉴스와 국가권력,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을 담은 연구가 발표됐다. 위원회에서는 박병태 중재부장(서울제4중재부), 김선종 중재위원(서울제3중재부), 김은경 중재위원(부산중재부), 권오근 사무총장, 조사2팀 이정희 차장, 기획팀 임미숙 대리가 참석했다.

황용석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 위원’ 위촉

황용석 위원(서울제3중재부,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지난 6월 11일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문가회의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올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재진 위원, <한국언론학회 기획 세미나> 개최

이재진 위원(서울제7중재부,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회장)은 7월 3일 프레스센터 18층에서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내 OTT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획세미나에서는 건전한 OTT 사업자들이 풀어가야 할 산업적·사회문화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승선 위원, KBS '공영미디어 미래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이승선 위원(대전중재부,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지난 6월 20일 출범한 KBS 공영미디어 미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연말까지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공영방송의 관련 법률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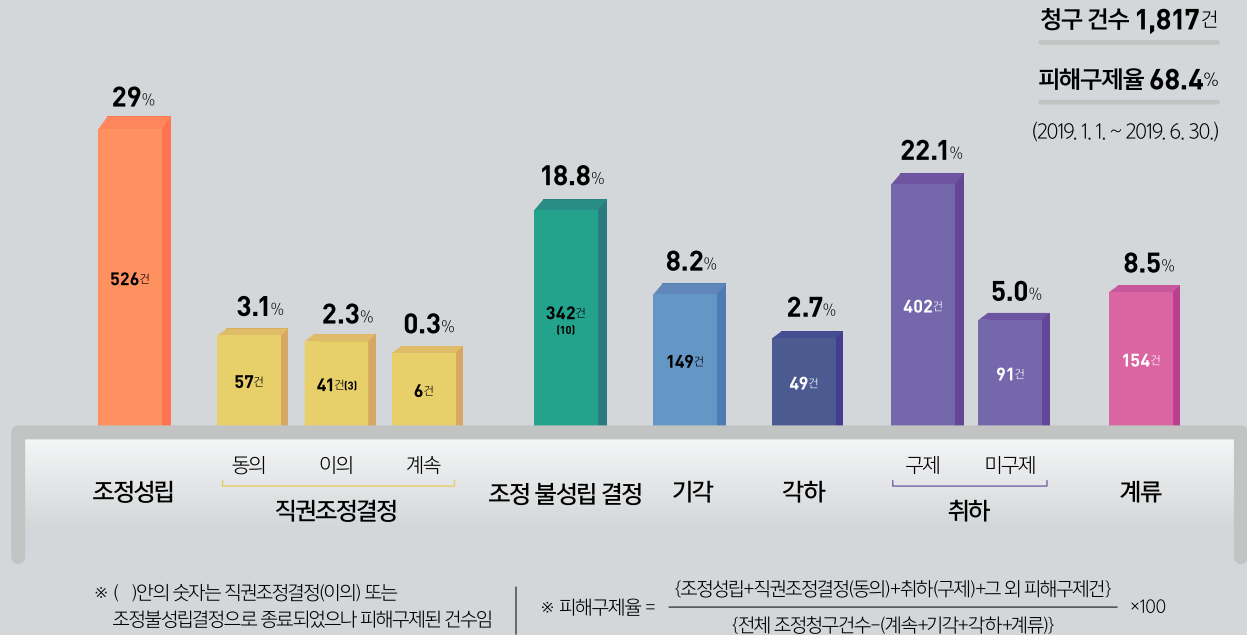
정연우 위원, 방통위 제3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위촉

정연우 위원(충북중재부,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은 7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제3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임기는 3년이며,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의 성과를 심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언론중재
2019년 상반기 언론조정신청 처리현황은?

2019년도 어느덧 절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올 상반기에도 국민과 언론 사이에서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는데요.

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총 1,817건의 조정사건을 처리, 피해구제율은 68.4%로 집계됐습니다.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른 사건이 526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취하 493건(27.1%), 조정불성립결정 342건(18.8%), 기각 149건(8.2%), 직권조정결정 98건(5.4%) 등의 순이었습니다. 취하 사건의 경우, 조정심리가 열리기 전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보도문 게재 또는 금전배상을 약속 또는 이행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구제가 된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493건 중 402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언론조정의 대상이 된 지 2019년 8월로 10년을 맞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원회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른 피해에 선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제4회 언론중재위원회

동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4회 언론중재위원회 공모전(동영상)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수상하신 팀 모두 축하드리며,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작은 언론중재위원회 공모전 홈페이지 '수상작 갤러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전 홈페이지: <https://contest.pac.or.kr>



추억의 놀이로 알아보는 '언론중재위원회'



SNSecurity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왜곡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었군요!



격돌! 언론중재왕



혐오주의보 속으로, 우산을 들고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블로그 pacblog.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pacnews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pf.kakao.com/_rthxiu